

■ 구인난·인건비 부담이 가져 온 요식업계 매장 내 셀프결제 확산

“이모~ 여기요!” 사라지고 셀프결제 확산

최근 키오스크·테블릿오더 등 스마트기기 활용 늘어 비용 절감 긍정 효과속 접근성 취약 고령층은 “불편”

16일 제주시 삼도동의 한 음식점. 테이블이 7개 규모인 이 가게에는 입구 계산대가 없다. 대신 모든 테이블 위에 작은 테블릿 메뉴판이 놓여있다. 손님들이 직접 주문에서 결제까지 하는 ‘테블릿오더’를 들인 것이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A(40)씨는 “인건비 부담이 적고 주문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 테블릿 메뉴판을 이용하고 있다”며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테블릿 한대당 2만원 안팎인데, 저희 가게는 한대당 월 1만3000원, 모두 합치면 월 10만원 정도여서 출에 아르바이트

생을 쓰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서 손님이 직접 주문·결제하는 무인 시스템인 키오스크, 테블릿오더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요식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대형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보이던 이 시스템이 요점, 호프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공공·민간부문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추

정)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지난해 45만4741대로 3년 사이 2.4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요식업의 경우는 5479대에서 8만7341대로 16배 가량 늘었다.

제주지역 요식업체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를 조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339곳에 스마트 기기가 보급됐다. 올해 4400개 점포를 지원하는 모집에는 전국에서 1만3000여곳이 신청했는데, 이 중 제주서는 20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

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돼 외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오른 인건비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술은 키오스크 등 주문 분야다.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53% 가량이 “조작이 어렵다”고 했다.

박소영기자

초등 돌봄전담사 매년 7~8명 증원

교육청 정원규정 개정...2020년 223명→ 올 9월 263명

“전담사 8명 증원되면 돌봄수요 200명 해소”

제주도교육청이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인력인 돌봄전담사를 263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자로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돌봄전담사 정원을 현행 255명에서 8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돌봄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취지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4월 말 기준 초등돌봄 초과 수요 인원이 831명에 달했을 정도로 학부모들의 초등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

돌봄 수요에 맞춰 이례적으로 학기 중인 5월에 정원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 3월 1일 자로 255명의 정원을 확정했지만 돌봄 수요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추가 인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측은 “초등 돌봄교실 1개반 학생 수 25명 기준으로 8명의 돌봄전담사가 추가 배치되면 200명의 돌봄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의 초등 돌봄전담사 정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23명, 2021년 230명, 2022년 237명, 2023년에는 255명이다. 이번에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오는 9월 1일 자 기준으로 돌봄전담사가 263명으로 또다시 늘어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교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초등돌봄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정원 증원으로 학부모들의 돌봄교실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골프장 3곳 적발

제주시, 과태료 부과 추진

제주시는 관내 골프장 9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3개 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개소 16건에 대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이뤄졌다. 제주시에서는 “골프장 오수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머리에 가방 얹고”...민방위의 날 대비 훈련 16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관공서와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동시 실시된 제41차 민방위의 날 훈련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택시서 현금훔친 30대 송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채 주차된 택시 2대에서 현금 6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달 30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제주시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도영기자

“앱 하나 설치하면 모든 긴급신고 가능”

행안부, 경찰·소방·해경 통합 ‘긴급신고 바로앱’ 운영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해경 등 긴급기관으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경찰과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속하

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포함돼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도영기자

국가장학금은 예비대학생을 응원합니다!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생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만들어 나갑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간 35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내용

- (기초·차상위)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
- (8구간 이하) 연간 350만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1~3구간 520만원/ 4~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
-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첫째·둘째 자녀 1~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 '23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앱 참고

국가장학금 알리미란?

국가장학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학기별 신청 기간이 되면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드리는 알리미 서비스

예비대학생이라면 QR코드 스캔으로 3초만에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www.kosaf.go.kr
-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검색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